

## 중앙교회 가정예배서

인도자 : 가족 대표

### 사도신경 .....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 찬 송 ..... 384장 ..... 다같이

1.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2.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3.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 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 기 도 ..... 가족 중

### 성경봉독 ..... 창세기 16장 7-14절 ..... 인도자

### 설 교 ..... “살피시는 하나님” ..... 인도자

### 기도(합심기도) ..... 설교자/다같이

1. 새로운 해에 이 나라와 민족이 주의 영광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2. 온전한 믿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옵소서.
3. 겨울철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 주기도문 .....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살피시는 하나님

창세기 16:7-14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러나지 않은 면은 없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시139:7-10). ▶ 창세기 16장은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를 전해 주고 있다.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사고를 많이 쳤다. 아브라함은 사고 치고, 하나님은 해결하시는 일을 반복했다.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 아브라함은 사라의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첩으로 들였다. 어떤 연유로 종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녀는 씨받이가 되었다.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으로서 아기를 낳는 수단이 되었다. 하지만 곧 그녀는 여종에서 어머니로 변신했다. 임신 후에 사라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 고향 애굽으로 도주하고 있었다. 그녀는 여권 해방운동의 선구자다. 하갈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광야 술 길에서, 사라의 학대보다 아브라함의 무관심이 더 서러워서 통곡했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세상이 나를 손가락질해도, 사라가 나를 학대해도, 아브라함이 무관심해도, 세상이 날 버려도, 도망자 신세여도, 아무리 누추한 자리라도, 하나님의 천사는 찾아온다.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절박한 처지의 하갈에게도 찾아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갈에게도 한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하신다. 하나님은 하갈의 울음과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하갈은 한 민족을 약속받는 신앙 체험을 했다. 천사는 하갈에게 그녀가 낳을 아이의 이름을 정해 주었다. “여호와와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창16:11). ‘이스마엘’이란 ‘하나님이 고통을 들으셨다’는 의미다. 하나님은 듣고 보살피 주신다. ▶ 하갈은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준 여인이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뵈었는고 함이라”(창16:13).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는 하갈의 신앙 체험을 바탕으로 한 신앙 고백이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술 길 샘을 ‘브엘 라해 로이’ 즉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란 지명으로 불렀다. 하갈은 지명조차 바꾸었다. 사람은 학대하고 무시하고 차별하고 편애하고 매정하고 미워하고 배신하고 버리지만, 하나님께는 다 소중하다. 다 거두어 주신다. ▶ 그뿐만 아니라 어머니는 다 위대하다. 다 자식 때문이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보이게 계실 수 없어서 어머니를 주셨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여인들을 보라. 모두 어머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자녀를 얻기 위해 간음이란 죄목으로 죽을 수도 있는 일을 벌였다. 다말은 베레스와 세라를 얻었다. 여리고의 창기 라합은 유대인에게 편입한 뒤로 살몬을 얻었다. 모압 여인 룓은 이새의 할머니가 되었다. 밧세바는 인고의 세월 후에 솔로몬을 낳았다. 슬로브핫의 딸들은 아들에게만 주어지던 상속을 출가하지 않은 딸들도 받게 하는 법을 만들어 냈다. ▶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어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살피시는 이로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살피시는 이로다”(시33:13-15). 여호와와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신다.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신다.